

아름다운 이야기



76th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diakonia)는 그리스어로 식탁에서 시종드는 것으로 영혼구원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막10:45)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섬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 기고를 받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에서는 동부교회내뿐 아니라 외부의 좋은 글도 받아 게재 합니다.

시, 수필, 공트, 신앙 간증, 평론, 정보소개 등 종류와 상관없으며 내용은 반드시 기독교(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반기독교적이거나 특정 의도의 글 또는 상업적인 목적의 글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글을 접수하며 선정된 글에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과 일반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이인호 010-6270-1744 / lihbingo@hanmail.net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표지사진 : 영월 동강할미꽃 (이인호 집사)

2021년 통권 76호

창간 2001년 5월 6일

발행일 2021년 4월 4일

발행처 춘천동부교회

발행인 김한호

담당교역자 정충

편집위원장 박경해

부위원장 이인호

사진 전경해

편집위원 임양숙, 정현숙, 김지원, 이예림

주소 (24353)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TEL 033)252-5959 FAX 033)241-1999

홈페이지 <http://chdongbu.or.kr>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

DONGBU GALLERY



〈백합화병, 수채〉



유명애 (Yoo Myoung Ai)

프로필(이력)

- 개인전 10회, 박정희-유명애 모녀전 5회
- 제10회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예술 대상수상 (기독교 문예협)
- 제2회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예술 선교대상수상 (한기총)
- 한국수채화협회, 신미술회, 한국 미협 자문위원
- 제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페스티벌 운영위원장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풍류1길 84-10 예예동산



특집

12

THE ARUMDAUN STORY 2021.3. VOL.76

춘천남부노인복지관



가 볼만한 곳

32

양구수목원



어부의 눈	04
교구이야기	06
문화예술 [김명숙 화백]	10
특집 [남부노인복지관]	12
포토에세이 [낮달]	15
특집 [교육부]	16
신앙에세이 [그림자]	22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장학금]	24
가 볼 만한 곳 [양구수목원]	32
라떼파파 이야기	34
인사드립니다	36
동부소식	40





환승

몇 년 전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비행노선이 복잡해서 여러 번 환승하여 여러 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중국을 거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국이었습니다. 비행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태국 공항에서는 10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공항을 몇 번 걸고 긴 의자에 누워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환승 탑승을 위해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의 말이 탑승할 사람이 없어 비행기가 취소되었으니 내일 오라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에서 해야 할 일정 뿐 아니라 당장 이 밤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환승은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유럽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텐, 고린도에 이르는 644Km 정도의 거리를 계속 환승해 갑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지를 알 수 없었기에 바울 역시 환승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심정이 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나와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전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번의 환승에서도 변함없이 앞을 향하여 나갔

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와 원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흉년이 들자, 이것을 핑계로 로마의 모든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헬라, 아가야,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사람 스테바나를 통해 고린도의 상황을 듣고 고린도로 전도를 온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행18:11),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 보냅니다.

마리오 요셉(Mario Joseph)이라는 사람은 무슬림의 이맘(무슬림의 종교지도자)이 있었습니다. '만약 건강한 아이를 낳게 되면 나의 자녀를 알라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의 부모는 서원했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자 그의 부모는 어린 마리오 요셉을 무슬림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무슬림의 종교지도자 이맘이 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Who is Jesus?(예수가 누구야?)"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이 물음에 당황해서 코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코란에 마호메트에 대해서는 4번 나오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25번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알라는 자신을 '주인'이라 부르고, 사람들을 '종'이라 부르는데, 야훼는 자신을 '아버지'라 말하고, 사람들을 '자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이슬람에서 나와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그를 찾아내어 때리고 결박했습니다. 그의 형은 그의 얼굴에 오줌을 싸고, 고춧가루를 눈에 뿌리고, 20일간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

다. 가 칼을 들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알라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입에서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바깥으로 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우연치않게 그 택시의 운전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택시 운전사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환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그에 맞추어 환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것인지, 해외여행은 언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을지, 예배와 모임은 회복이 될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이뿐입니까? 새로운 직장이 좋을지, 대학을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은퇴 이후 살아야 삶 등등 우리는 인생의 환생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함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시는 상황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놓으신 축복의 자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

글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춘천에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저는 2020년 2월 2일 춘천동부교회의 후원선교사로 뉴질랜드에 훈련을 떠난 오시혁, 정지연 선교사 어머니 김영후 권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먼저 우리 가족을 춘천과 춘천동부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은행에 근무하며, 서울 명동성당에 다니던 중 지금의 남편(정진석 안수집사)을 같은 은행에서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난삼아 건네었던 쪽지 하나가 계기가 되어 결혼으로 이어졌고, 딸·아들을 낳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첫아이(딸 정지연)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하여 성당도 가지 못하고, 냉랭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이 성장하여 피아

노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원장님이 아이들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교회로 전도하여 자연스럽게 저까지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람들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서(모임 숫자가 최고로 27개로 추정됨) 정상적인 시간에 집에서 남편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을 왜 했나? 장난삼아 던진 쪽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시댁의 어머니와 아주버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그 큰사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시댁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편 자신이 생각해도 위기였음을 느꼈는지, 저와 아이들 앞에서 불쑥 자신도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가겠다고 선언하고, 아이들 손에 끌려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수집사 직분 받고, 남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상할 정도로 선교부장, 선교복지위원장 등 해외 선교 쪽으로 많은 시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딸과 아들 모두 결혼하고,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중 사위(오시혁)가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울 가까운 양주병원으로 발령받기를 희망하였는데 예상치 않은 춘천국군병원으로 발령받으면서 그때부터 저희 생활권이 춘천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춘천에 어린 손주들(당시 2명)과 딸만 보내기는 아닌듯하여 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춘천에 내려왔습니다. 딸이 손주 3명을 낳게 되면서 급기야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동원된 춘천살이가 시작되었고, 한 아파트 안에 7명이 거주하는 것이 너무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자

상한 사위와 딸 덕분에 춘천 곳곳을 누비며 최고의 행복과 수도권 사람들에게 춘천 홍보대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춘천사랑에 빠졌습니다. 군의관 3년 동안 자녀들과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군 복무를 마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춘천을 너무 좋아하며 사위는 강남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딸은 춘천시립노인병원 내과 과장으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부부는 주일 새벽마다 약 25년 섬겼던 서울교회로 2년 이상 한 번도 빠짐 없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철 뜻하지 않은 눈사태로 교통사고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접하고 춘천에 임시 교회를 택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집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섬기는 춘천동부교회가 최고니까 말씀 한 번만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라고 권하여 담임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춘천동부교회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춘천에서의 저의 삶은 환경, 사람, 교회 모두 환상적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가끔 딸이 '나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가끔 선교의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그사이 사위는 신경외과 교수로 제의를 받고, 병원을 개원해 주겠다는 제의도 받았으나 모두 고사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 즈음부터 선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편과 자녀 간에 전쟁 아닌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집안 분위기는 먹구름으로 변하여 갔습니다. 남편은 자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안정된 후, 노후에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뒤의 삶에 대한 카드까지 제시하고, 딸이 가장 좋아하고 의사가 되기까지 롤 모델인 큰아빠(의대학장)까지 동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득에 실패하고 결국 2020년 2월 2일 자녀들은 뉴질랜드 선교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늘 배려하고 헌신하는 심성 착한 아이가 양가 부모, 직업과 나이, 건강 등 모든 상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떠날 때의 마음들은 어떠했을까! 지금 그런

마음들을 회상하니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메모한 것 중 발췌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5:26)" 자녀들이 지금까지 저의 품 안에서 보낸 행복했던 시간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나의 딸 나의 자랑거리였던 지연이, 하나님의 자녀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소유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 주변에서는 제가 우울증이 올 수 있다며 걱정과 위로와 기도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서울교회에서는 이제 춘천에 있어야 할 명분이 사라졌으니 속히 올라와 예전의 모습을 찾자고 많은 분이 기다리며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말 힘들고, 낙심되어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간절하고 같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 손잡아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신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과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그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말씀과 뜨거운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춘천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춘천은 텅 비어 있었고 절망뿐이었고, 아직 춘천동부교회 성도분들과 많은 교제는 없었지만,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다시 시작하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저희 부부도 디아코니아 3단계에 임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저희이지만 섬김으로 나가겠습니다. 부교역자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위로해주시고 때로는 훌륭하다고 칭찬하여주신 그 마음들을 모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손주들까지 포함하여 부족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보내주신 관심과 무한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4교구 김영후 협동 권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받아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김재복 집사님으로 경기도 일산이 고향이시고, 평생을 군인으로 복무하시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육군 준위로 예편하시니까 여러 부대를 이동하시면서 전차 정비관으로 재직하시며 보이신 한결같은 성실과 충성,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동으로서의 든든한 아버지가 저에게 감사함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박우숙 권사님으로 충청남도 서천이 고향이시며, 초등학교 3학년때 인

사랑하는 춘천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9년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김요환입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에 성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하루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와 가족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 경상북도 포항을 고향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나기만 포항에서였지 아버지의 근무지 전출로 인해 2년에 한번씩 이사를 10번 이상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를 춘천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제1의 고향은 춘천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춘천고등학교(87회)를 졸업한 후에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영학과 법학을 복수전공했습니다. 현재는 2020년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사무직에 공채로 합격하여 기초연수를 마치고 강원지역에 발령

제군 원통으로 이사를 오셔서 학창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이후 아버지와 만나 백년가약을 맺으셨으며, 군인이신 아버지 옆을 극진히 내조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에게 소홀함 없는 주부이자 어머니로 지금까지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의 누나는 김한나입니다. 홍천에서 태어나서 제가 태어난 포항을 거쳐 고향인 춘천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와는 8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론 친한 친구처럼 언제나 자상하게 저와 동고동락해 주었으며, 때론 어머니처럼 엄하게 교육함으로 제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사랑하는 누나입니다.

저는 항상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북한 이탈주민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사회 정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 강연의 끝에 들었던 강연자의 말이 제 인생에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

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파스를 붙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싸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 느낌에 대해서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공부하고 고민해왔다는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이자 대학생 4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인 취업 시장에 도전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원한 곳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교육, 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그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단 3명만을 뽑는 자리에 1,284명이 지원했고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을 거쳐 최종면접까지 갔으나, 탈락이라는 쓰라림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첫 지원에서 최종면접까지 갔다는 기대감이 컸던 만큼 탈락의 아픔 또한 컸습니다. 채용과정에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있었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픔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져왔던 통일에 대한 꿈이 재단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 혼자 예단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불합격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마음을 다잡고 2020년인 작년 하반기, 다시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로 하였던 공기업들이 요구하는 자격들을 준비하고, 필수 요건인 어학에 몰두하였으며, 필기시험을 대비 하였습니다. 정말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이를 위해 쏟아내며 투자했습니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였기에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당시를 회고하면 허리도 아프고, 때로는 폭 자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요행만을 바라는 종교인의 모습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가치관입니다.

매일 확인하던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공고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한전은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은 한 번쯤은 꼭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저 역시 지원할 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원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행하시고, 뜻이 아니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부한 말씀일지도 모르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상반기에 겪은 탈락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 했었던 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탈락을 했던 경험이 한전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의 사랑과 나눔의 상징인 디아코니아 장학금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 공부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나도 언젠가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저의 소망,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 밤 중에 인공위성으로 한반도를 촬영하면 섬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 지역은 전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어둠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해지고,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슬피 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찾아올 통일 시대에 북한 지역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춘천동부교회 성도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글 5교구 김요한 청년
(김재복 집사, 박우숙 권사 장남)

바늘 길 따라 그려진

영혼의 종착지, 母性

춘천시 동면

김명숙 아트인강원 이사장



그 곳은 빈 골짜기처럼 고즈넉하다. 깊어진 계절을 이고 오솔길 너머 잎을 떨어뜨린 나무들이 군세게 바람을 견디고 있었다. 춘천시 동면 화가의 정원에 지난 계절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흰 벽엔 한겨울에도 초록빛이 선명한 담쟁이가 지붕에 앉았다.

춘천시 동면 연산골 김명숙(72.아트인 강원 이사장) 화백의 아틀리에를 찾았다. 공업용 재봉틀과 천 조각, 실타래, 물감.... 붓이 아닌 바느질과 마름질로 완성되는 작업은 고된 노동을 동반한 외로운 작업이다. 작업실을 제외한 벽면은 작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들꽃과

눈 쌓인 별판, 약동하는 생명나무 등 쇠 솔로 풀어내거나 촘촘한 바느질로 완성된 작품을 마주하고 작가의 정서에 공감한다. 예술 감각은 타고나는 것,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에 담고 스케치를 즐기던 아버지의 유전자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크레용과 물감, 도화지, 붓 등을 사다 주셨다. 장난감보다 그게 더 좋았다. 가위를 갖고 종이며 천 조각을 잘라 인형을 만들고 놀았다. 어려서도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잘해 칭찬을 많이 받았다. 딸의 재능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키워주셨다."

화가의 길은 자연스러웠다. "중학생 때부터 미술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림을 그리느라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지냈다. 지문이 다 닳도록 데생을 하고 붓을 잡았다." 김 화백은 춘천여고 졸업 후 경희대 미술교육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춘천 성수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학교에서 남편 고 김학철 장로(3년 전 작고)를 만나 결혼했다. 교사 생활 14년, 유치원 경영 14년 등 성실하게 살며 아이들을 키웠다. "여성은 가정이 우선이다. 일과 양육, 가정, 작품을 균등하게 하기란 쉽지 않다. 주부는 자녀교육이 완성되어야 예술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전업 작가가 되기 위해 많은 걸 포기했다. 50대 초반, 섬유회화라는 새로운 작품을 시도했다. 촘촘한 바느질로 길을 내고 그 길은 '영혼의 정원'으로 향한다. 바늘 길을 따라 그려진 영혼의 종착지는 생명 그 너머의 모성(母性)이다. 김 화백의 작품에선 강렬한 모

성애가 느껴진다. 김 화백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일본 설치미술가 쿠사마 야요이(1929~), 프랑스 조각가 루이스 브루주아(1911~2010). 그녀는 두 여류작가에 관한 논문으로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화백에게 2019년은 선물 같은 해였다. 고회를 넘긴 화가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해 5월, 대한항공이 서울~블라디보스토크 취항 25주년 기념으로 미술전을 기획했다. 김 화백의 작품 50여점이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미술관에 전시됐다. "국제전은 전시목록부터 컨테이너 작업까지 세밀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다. 혼자서 할 수 없어 강원도청 공무원이 많은 도움을 줬다." 전시회는 성공이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전시회는 작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 한 달간 열린 전시회에 1,000여명의 러시아 관람객이 다녀갔다. 국경을 초월해 공감을 얻어내고 작가로서의 명성도 단단히 뿌리를 내린 전시회였다.

2018 광주아트페어에 강원도 대표작가로 참여했다. 남편의 투병과 맞물려 전시에 관여할 시간이 없었다. 전시회를 둘러보던 프랑스 갤러리 관장이 김 화백의 작품을 보고 만나기를 원했다. "전시 이틀 만에 아트페어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파리에서 전시회를 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심은복 미술비평가와 인연이 이어져 전시회가 성사됐다." 출품했던 작품 세 점이 다 팔릴 만큼 호응이 컸다. 김 화백은 강원도가 주최하는 2019년 문화교류지원사업-국제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돼 9~11월 두 달 동안 파리에 체류했다. 체류 중 '엘컨셉갤러리'에서 한국과 프랑스 작가들의 예술 교류전에 참여했다. 김 화백의 '영혼의 정원(Soul Garden)'은 파리 화단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파리 '프랑소와즈 리비넥' 갤러리 전속작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됐다.



김 화백은 "내 작품의 모티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감동'."이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과 타자의 마음에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 화백은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한다. 작품이 팔릴 때마다 일부를 기부하고 호스피스와 초록어린이재단 등에 그림을 기부했다. 그녀는 그림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한다. 남은 삶은 후배 미술인들의 길잡이로 힘을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하길 원한다. 칩거의 계절, 화가의 작업실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새봄, 한층 깊어진 그녀의 작품을 만나고 싶다. 

글 전경해 집사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

남부노인복지관



“이런 마을에서 나이들고 싶구먼.....”

살던 곳에서 아름답게 나이들며 가족, 친구, 이웃과 건강하게 어울려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유안진시인의 시처럼 저녁을 먹고 나서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을 마실 수 있고, 비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으며, 공허한 마음을 마음놓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아마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노년기를 보내거나 고독사가 생기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한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화의 문

제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이 행복한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이기도 하며, 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화와 환경이 노인친화적으로 잘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로 어르신을 행복하게" 라는 비전으로 지역 어르신의 아름다운 노년생활을 지원하는 복지관.. 바로 남부노인복지관입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은?

남부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개관하여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 3천여 분의 어르신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고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일 천 여 분의 어르신이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은 태권체조, 요가 등의 건강교육프로그램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특화 교양교육프로그램, 캘리그래피, 동화구연 등의 취미여가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을 위한 약 70여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스마트토이 지원사업"등의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홀몸 어르신이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까지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지원해 드리기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강남동예비군동대, 남부통합돌봄센터와 함께 '한지붕 네가족'의 생활속에서 공간적으로는 다소 좁은 점도 있지만 국내 유일의 "민·관·군 협력체"로 화목한 복지 공동체를 이루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동행지원서비스, “고령사회를 이롭게하는 선배시민연대” 등 어르신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복지의 범위가 의료, 교육, 문화, 인권, 환경 등 포괄적으로 변하고 있

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은 인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복지관입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어르신들의 희노애락을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하려면 지역사회가 행복해야 하고, 어르신이 안전하려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해야 하고, 어르신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의 입장에서 아동,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폭력 예방에 기여하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 정서지원, 물품지원 등 맞춤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병원, 은행 등 이동이 필요할 때 동행을 지원해드리는 동행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께는 안전한 이동을 지원해드리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족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려서 가족의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사각지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복지관에 오셔서 봉사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의 참여로 매일매일 건강을 지키고 계시는 분과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었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복지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시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관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시고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장 안타깝습니다. 모든 활동이 제한되는 이 시기에 복지관은 새롭



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저희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어떤 위기와 활동 제한 속에서도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웨어러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을 통해 복지관에 방문하지 못해도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춘천은 양극화가 심한 도시입니다. 학력이 높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어르신이 계신가하면 생활이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재능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드리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결연 및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소망

모든 어르신들과 봉사자와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남부노인복지관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르신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어르신의 친구와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봉사나 밀반찬봉사 또는 밀반찬의 재료를 후원하셔도 되고, 홀몸어르신들과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새로

운 가족이 되어 주실 수도 있으며, 어르신의 생신을 챙겨드리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어르신을 위한 물질 후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친구로, 후원자로 함께하시면서 어르신들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르신들의 외로운 마음에 가족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저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디아코너스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실거라 믿습니다.

저희복지관은 2021년에도 "디아코니아로 어르신을 행복하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사랑의 메신저로 따뜻한 친구로 항상 든든히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박란이 관장



낫달

눈 없는 겨울을 수년째 보냈다.
 자고 나니 흙은 간데없이 도둑눈이 마당을 채웠다.
 겨울 초입부터 눈이 내리더니 입춘날 밤에
 발목까지 빠지도록 눈이 내렸다.
 눈발을 헤치며 돌아다닌 고양이와 알 수 없는
 동물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있다.
 들판은 한 번도 봄이 온 적 없는 것처럼
 겨울에 묶여있다.

쌍인 눈을 보며 봄을 꿈꾼다.
 햇살이 짹짹 언 저수지 언저리에 닿아있다.
 눈석임물을 먹고 푸르게 돌아날 온갖 잡초들과
 나무의 새싹들이 기다려진다.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던 계절이 그렇게 지나간다.
 오늘의 혼란스러움도 제자리를 찾으리라.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도 맥없이
 햇볕 아래 녹아들었다.
 폭설이 내린 아침, 낫달이 나무에 걸려있다.
 달도 해 바라기를 하러 나온 모양이다.
 봄을 그리며....

글 전경해 집사

지혜로 극복하는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부

〈영아부〉



2021년 영아부 표어는 "하나님 따라 콩콩콩! 말씀 따라 쑹쑹쑹"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 19 상황으로 예배 및 반별 모임과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가정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합

니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어린이 교재와 가정교회학교 학습지를 각 가정에 전달하여 듣고 배운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반복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월 1회 부모교실을 통하여 교육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어린이(보호자)들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교육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영아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되겠습니다. 🌱

〈유치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이

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로 북적북적했던 유치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계획되었던 행사뿐만 아니라 예배와 공과 시간을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체온계를 통해 한 사람씩 확인하며 명단을 작성하고 각자 한 테이블씩 앉아 거리 두기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전면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면서 영상예배를 녹화하여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소중함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와 가정 이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유치부에서는 가정과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과 원활하게 예배가 진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유년부〉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며 비워둔 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어요. 교역자와 선생님들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했지요. 적은 수이지만 현장에 나왔던 친구들이 저희에겐 너무나 소중한 해서 소홀히 대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예배의 추억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환경 지킴이'는 환경 주일에 했던 미술 활동이었어요. 동명의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작게 오린 재활용품을 재생도화지 위의 분리 수거통에 넣어 직접 분리수거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에게 재생휴지도 선물했지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위대한 습관을 연습해 보았답니다.



추수감사 나눔예배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한 달 동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쌀을 모아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 100개를 만들었고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의 식사 꾸러미에 함께 담아 나누어드렸어요. 친구들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좀 더 넓어졌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을 준비하고, 가정공과를 통해 예배를 돕고자 했어요. 감사하게도 매주 빠지지 않고 가정공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답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 카네이션 만들기 키트, 선물 등을 가정으로 보내드렸어요.

앞으로도 유년부 선생님들과 교역자는 현장예배와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거예요.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년부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함께 기대해주세요. 🌱



<초등부>

우리 초등부는 작년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선생님들과 기도하며 힘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에는 예배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성경퀴즈와 달달 말씀 암송과 미션들을 제

시하는 예배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 가정에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드리면서 주어진 성경 퀴즈들과 미션들을 푼 사진과 가정예배 사진을 전도사님에게 보내면 부서에서 시상을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더불어 매달마다 부서 아이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부모님들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며, 달마다 배우는 공과와 행사들을 적은 계획표와 부서 기도 제목을 넣어서 소통하려고 힘썼습니다.



성경학교 기간에는 부서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모든 아이가 거리두기를 지키며 참석하도록 각 가정에 영상과 성경학교를 위해 부서에서 준비하는 모든 상황을 학부모님들께 전화로 소통하며 전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상예배를 만들기보다 부서 안에서 예배 영상을 촬영하여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기간이지만 저희 부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역자와 교사들이 한 아이 한 아이를 귀하게 여기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정통신문과 사랑이 담긴 손편지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힘쓰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 시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소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를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년부〉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40명가량 참석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중단할 수 없었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더욱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차 있던 소년부 의자를 거리 두기가 가능하게 정리를 했고, 출입명단 작성과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녹화해서 송출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생님들과 몇몇 아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정 예배문을 따로 제작하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는 예배와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될 것 같았지만 최근 거리 두기 격상으로,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예배를 조금 더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을까?", "더욱 생생한 예배의 현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도중, 3주에 걸쳐서 제 고향인 대구에서 대구의 기독교 관련 문화재 소개와 동시에 설교를 촬영했습니다.



3주간 대구와 경상북도의 유명 기독교 문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1주 차는 3.1운동과 기독교 사회 운동의 장이었던 대구 YMCA 역사관(등록 문화재 570호), 2주 차는 가곡 '동무 생각'의 배경이 되는 곳과 대구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청라언덕과 의료선교박물관에서 설교를 촬영하였으며, 3주 차는 경북 영천으로 가 문화재 교회인 자천교회(경북 문화재, 1903년 설립)에서 설교를 촬영함으로, 한국의 기독교 문화재를 소개하

며, 설교를 촬영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새로운 지평을 기대하는 소년부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중등부〉



올해 초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짧게는 4, 5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근황을 묻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아이들과 통화가 안 되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했습니다. 아직 얼굴 한 번 못 봤지만 그렇게라도 관계를 맺어놓아야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중등부는 학생들이 교회를 찾아와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려 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로건 카톡으로건 계속해서 소통을 늘려나가려 합니다. 겨울이 지나기 전 온라인으로라도 수련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무리가 없는 선에서, 드라이브스루 심방으로 학원 앞이든 집 앞이든 직접 찾아가려 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다져나가는 가운데, 사순절 기간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 줌을 통한 온라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약받지 않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 간에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온라인으로 한없이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 삼는 중등부 교회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 성수를 잘하며,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점차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등부〉

전 세계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을 넘어서 비접촉 사회가 되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위축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 고등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약 3분의 2 정도나 되었고,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던 아이들이 장기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하며 크게 두 가지의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영상예배의 활성화입니다. 고등부는 현장예배를 꾸준히 유지하는 한편,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상(온라인)예배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음질·화질·콘텐츠 등의 문제로, 현장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영상(온라인)예배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상예배의 활성화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라인 부모 세미나 및 온라인 회식(청년 교사) 등과 같은 콘텐츠를 활용하며 신앙적인 성장을 꾀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자 이것은 결국 영적인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불러왔던 영적인 침체로 인해 고등부 학생들은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았던 두 번째 해답이 바로 심방이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의 집으로 찾아가는 1차 심방(4월), 학교로 찾아가는 2차 심방(5~8월), 마지막으로 선물과 엽서를 써 보내는 3차 심방(11월/비대면)까지 고

등부는 꾸준히 아이들과 소통하며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앞으로도 고등부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영적인 성장과 안녕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성도분들께서도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춘천동부교회는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조치와
안전을 고려하여
교육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어느 날 밤, 그림자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달빛 쏟아지는 하얀 담 위에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며 그려지고 있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후, 사진 한 컷을 보았다.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찍은 작품이었는데 지난 날, 보았던 달밤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흑백 사진이어서일까? 내가 화가라면 그런 그림, 한 가지 색의 농도와 선(線)만으로 표현하여 화폭에 담아보고 싶은, 멋진 작품이었다.

세상 만물 중에 실체가 없으면서 존재하는 <사랑> 같은 그림자. 그림자는 내 마음 한 구석에 담긴 채 다시 볼 수 없이 신비함을 감추고 사라진다.

인생은 빛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난 몰랐다. 그림자는 빛과 어둠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고, 스

스로 탄생하지 않는다. 사랑스러워야 할 존재면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치 조선 시대의 서자 느낌이랄까.

그림자는 그 말부터 딱히 이유 없이 비극적으로 느껴진다.

지금도 군주국가가 존재하지만 군주국가의 국왕은 지존이다.

왕비 또한 그에 못지않다. 그래서 국왕이나 왕자, 그리고 그들의 혼례는 세상 모두가 동경하는 예식이다. 혼례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비(妃)가 주인공이다.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세계의 시선은 그 곳을 향한다. 부러움과 호기심은 그 어디에도 비교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존귀와 사랑을 받는 자리이기에 남녀노소 못 가슴들을 두근거리게 한다.

그 감동이 한결같이 이어져 평생을 살다가 떠나는 삶이라면 오죽 좋으랴만 인간이 이루어가는 세상사 이기에,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버리듯 영화(榮華)가 비운(悲運)으로 끝나버리기도 한다. 눈물을 뿌리지 않을 수 없는, 한 많은 역사의 뒀안길에 쓸쓸한 그림자의 운명을 살다 간 황후, 왕비, 세자비...

어찌 그들뿐일까. 사람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비바람을 맞는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지만 누가 피할 수 있을까? 우아하게 나이 들거라고, 젊음 평안함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시간 속에서 우리는 모두 거기서 거기, 고만고만 비슷하게 아픔도 고난도 겪으며 살다가 떠나가는 게 인생이다. 억울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

찬란한 햇빛 속에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바람에 흔들리며, 행복해하고 애꿎으며 산다.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겉모습일 뿐 진짜 속 모습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인생 가운데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인생도 있다.

비록 인생의 마지막이 치매와 마비와 인간에게 외면당한 비극 가운데 누웠을지라도.

삶의 곤고함을 살아낸 인내와 눈물이 뻗 육신. 다리가 휘고 허리가 굽고 주름진 목에 어눌한 말과 눈동자는 생기를 잃었지만 저 너머에 있는 영혼은 경이롭다.

우리가 평가 할 수 없는 그림자를 껴안고 살아온 엄숙한 고요함이다.

밝고 사랑스러운 햇살이 없다면 그림자가 있을까. 그림자는 그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림자의 아픈 이유고 존재 이유다. 그림자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과 찰나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일지 모른다.

어린 날 그림자와 놀던 날들,

낮이면 햇살 아래서 친구들과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밝히며 놀았다. 그림자를 밟으며 밝히지 않으

려 왜 그리 그악스러웠을까.

밤이면 등불 아래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 내며 마음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림자가 늘 아쉬웠었다.

어른이 된 후엔 또 다른 형태의 그림자로 인해 내가 나를 찌르는 수많은 날들이 그 얼마였는지.

나이 든 지금은 체념일까 담대해진 걸까. 무덤덤해진 감정으로 한숨 자고 나면 돈이나 명예가 대수냐며 사람도 죽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눈물도 하찮게 여기는 나무토막 같은 감정.

누가 그림자를 순간이라 하는가. 한 번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을.

그림자는 자신을 남기려고도 드러내려고도 않는데 형태도 없는 그림자가 희미한 바람결에도 향기 끝에도 휘감고 돈다.

해는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

장엄하게 온 세상을 밝히며 떠오른 햇살, 그 뒤에 언제나 조용하지만 최선이고 사라지지 않을 그리움이며, 길이 역사로 남는 해 그림자를 돌아보며 오늘을 산다. 🌄



글 임양숙 권사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수인입니다. 저는 항상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고 가정 형편이 나빠지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등록금 걱정도 많이 있었고 입학하더라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것 같아 제 자신에게 믿음과 신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장학금 수여식인 당일, 춘천동부교회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디아코니아 장학생 모두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자체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제 삶에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개인적으로 작지 않은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 생활에 필요한 노트북을 꿈도 꾸지 못했는데 도움을 주신 덕분에 구매할 수 있었고 과제에 필요한 준비물도 준비할 수 있었으며 강의 시간에 필요한 교재 또한 살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학기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에게 필요한 생활비에 보태고 있으며 학교에서 아직은 신입생이라 모든 게 다 어색하고 서툴지만 적응을 잘해가고 있습니다. 출석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며 학업에 열중하며 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유아교육과 학생회에 들어갔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때도 잘할 것 같다고 원장님이 좋아하실 거라며 칭찬을 들었고 수업시간 중간 중간에도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서툴고 부족하지만 칭찬을 듣고 하루하루 배워가며 성장해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뿌듯하고 스스로에게 대견하

고 자존감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이번 장학금으로 학교 생활에 보탬으로 인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졸업 후 아이들이 과거를 회상했을 때 자신의 유아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하지만 이번 디아코니아 장학금을 통해 하나의 꿈이 더 생겼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와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꿈입니다. 꼭 취업하여 성공하고 제가 안정적이게 되면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디아코니아 장학생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학교생활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한림성심대학교 김수인

강원대학교 김은수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늘 방황하며 꿈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학교를 들어왔지만, 대학을 진학하고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진 거 같아 늘 무기력하고 앞으로의 길이 출구 없는 캄캄한 터널처럼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매우 가벼워지고 그로 인해 꿈에 대해 더욱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닌 내 목표를 향해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제껏 혼자인 줄만 알았던 캄캄한 터널 안이 혼자가 아닌 때 순간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날들을 회개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저의 길

을 의심하지 않고 교회에 부끄럽지 않은 신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글 강원대학교 김은수

*** **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돈을 벌어서 휴대폰비 등 제가 필요한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사용했습니다.

처음 돈을 받았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해 차라리 일이라도 하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제 미래에 대한 기도중에 체육 선생님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갑작스레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능이 1년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매일 기도 드리며 일을 하고 동시에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일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 둘 수 없었고 한림대 체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 2018년 3월 18일 동부교회에서 디아코니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같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후 저는 일을 줄이고 제 꿈을 위해 더욱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길 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글 한림대학교 박능력

*** **

사실 저는 처음에 디아코니아 장학생을 지원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추천서도 부탁드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야하는데 만약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다면 투자한 시간들이 많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들도 꽤 했습니다.


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원한 결과 디아코니아 장학금을 통해 도움을 받아 대학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금전적인 걱정 없이 또래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단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저에게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크게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잘 알게 되자 학교생활 역시 하루하루 잘 보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고 이것이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자 대학 생활을 허무하게 보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 과 동기들과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시험공부와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며 알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아코니아 장학생에 선발된 것을 계기로 저 역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비전은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치료사가 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꼭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교내 봉사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모임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봉사라는 것을 알았고 지금 실제로 중학생을 지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를 가르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이 봉사가 제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이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봉사에 참여한 이후 지도 교수님과의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관련 심리학적 지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심리학 전공수업을 열심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과 방학 기간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인턴십 활동을 통

디아코니아 장학금

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정보를 통해 제 비전을 위한 경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디아코니아 장학금을 통해 얻은 이러한 소중한 기회들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사회 심리학과에서 다양한 심리학적 지식을 쌓고 제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 숙명여자대학교 박에스더

* * * * *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재학생 양지혜입니다.

우선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알바를 하였는데 디아코니아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알바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학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시간적인 여유로 인하여 '나노섬유'에 대한 개별 발표 준비를 성실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다른 과목들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흥미를 느끼는 조직공학 분야의 연구원이 되어 인류의 건강복지에 힘써 국민 모두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에서의 봉사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노회 어린이 대회에서 초등부 중창팀의 지도 선생님께서 또한 반주자로 봉사하여 금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모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글 강원대학교 양지혜

* * * * *

할렐루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을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셔서 주신 장학금으로 1학기 동안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네 이장님의 추천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며 장학사업을 하시는 분의 장학금을 20만 원씩 2회에 걸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꼭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까지 실천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학금을 받는 처지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들 10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던 해에 IMF 사태로 종합건설업을 운영하시던 아주버님과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집안이 풍비박산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채와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정의 필요를 이와 같이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불굴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디아코니아 장학생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 이하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 말은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딸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도 원만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며 많은 사랑으로 보살펴주시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체험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자라고 있음이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저희 가정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동부교회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하시는 동부교회 위에와 여러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더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예지, 찬연이의 엄마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주신 하나님과, 장학위원회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하여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한쪽 길은 학문을 배우는 길이요, 다른 길은 기술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세무회계과와 한국폴리텍대학교 산업설비과의 두 길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저의 꿈은 기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폴리텍대학교 진학을 계획하던 중, 학문을 전문적으로 더 탐구하고 기술을 배운다면 다른 기술자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자가 되어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한림성심대로 진학하는 것도 고려해 보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당시에도 한림성심대 진학이 거의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일까 다시 생각해 보며 기도하던 끝에 이 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폴리텍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입학하여 적응에 힘들던 중,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가지고 있던 등록금이 채워지며 큰 도움이 되어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었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까지 왔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청년 되겠습니다.

글 폴리텍대학교 유성주

지난 2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3년 차인 오빠가 제가 각각 대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부담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런 큰 도움에 부응하고자 중학교 시절보다 더욱 학업에 열중하며 미술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때와 많이 다른 고등학교 생활이지만, 제가 진학하게 된 유봉여자고등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끌어주시는 것에 열심히 따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크게 도움을 받은 덕분에 막연하게 '미술을 하겠다!'라고만 생각했던 꿈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꿈나리 도서관에서 매주 일요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업에 더욱 열심히 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부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유봉여자중학교 유진주

디아코니아 장학생 모집공고를 보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접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공고를 볼 때까지만 해도, 제 관심은 '서울 자취방의 월세랑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막막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기 직전에는 갑작스럽게 병원치료를 받게 되어 목돈을 들여야 하는 상황도 찾아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면서도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해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크나큰 빛을 진 것은 아닌데도,

저를 무엇보다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 너무나 외롭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려도 잘 해결되지 않았던 외로움은 제가 말씀에 더욱 기대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시편 4편 4절 말씀이 떠올라 가만히 자리에 누워 마음으로 읊조리듯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못했을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적인 필요부터 물질적인 필요까지 모두 채워 가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디아코니아 장학금을 신청하며 자기소개서와 비전을 적어 내려가는데, 이때까지 동행하시고 제 모든 필요를 채워 오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신앙 공동체와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비전을 심어 주셨던 일이 새록새록 떠올라 다시금 감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떠올리며 크리스천 교사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했던 과외나 학원 강사 일을 집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지혜를 훈련받는 기회로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받고 외로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미 제 마음을 새롭게 채워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나서, 제 거처도 같이 해결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좁은 자취방에서 동기 학생들 여럿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좋은 학사에 새로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용고시를 앞두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허락해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회교과 임용고시

는 바늘구멍이라고들 하지만, 지금처럼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NO를 이야기할 때 YES를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영적 리더십을 갖춘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18학번 신입생 친구들을 데리고 순모임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초등부 교사로 교육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력과 영성을 두루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물질로 동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성균관대학교 이지영

안녕하세요. 디아코니아 장학생 임찬규입니다. 문학이 좋아서 국어국문학과에 왔습니다.

대학에 와서 배운 점이 있다면 세상에는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이다지도 많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령 디아코니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원하던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는 지금의 제 모습은 상상 속의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았을 테고요. 그러니 이곳에서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데에는 비단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밀어주시고 저 앞에서 이끌어 주시던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노고가 함께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아코니아'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어린 친구들이 일찍이 국어와 문학에 흥미를 갖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곳 한양대학교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의 사회봉사와 재능기부에 앞장섭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같은 도움을 혼자만 받고 끝낼 수는 없겠죠. 디아코니아가 그렇고 이곳 한양대학교가 그러하듯이, 저 또한 다른 누군가를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조력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개강 직후에 다녀온 동부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장학생 대표가 되어 많은 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종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제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밤새워 과제를 준비하는 나날의 피로함이 아니라 이 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과 하나님과 동부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희 장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신 동부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글 한양대학교 임찬규

*** **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동부교회 담임목사님 이하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대학교와 학과를 옮기면서 경비가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춘천에서 횡성(송호대학교)으로 가는 교통비와 식대비 그리고 미용학과에 필요한 값비싼 재료비 등 많은 물질이 절실했던 차에 이렇게 저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모두 충당할 수 있었고 여호와이레 하나님을 다시 한 번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는 당일,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한호 담임목사님께서 저희 장학생들에게 더 많이 못줘서 미안하다는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웠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따스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느낄 때는 내가 받는 장학금은 그냥 돈이 아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결정체임을 알았습니다. 분명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까지 이르며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가가 축축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달 받은 장학금임을 알기에 저는 장학금

을 한 번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별하여 십일조를 드렸으며 30여만원은 미용재료비와 버스비와 식대비 등으로 지금까지 알뜰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물질의 어려움과 걱정 없이 평강의 마음으로 적성과 재능에 맞는 공부를 하다보니 이번 "13회 2018 미용국제대회"에서 헤어(드라이)부문에서 우수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던지요. 앞으로도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서도 담대함으로堂堂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후원하여 주시는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 또한 저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송호대학교 조예지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민탁입니다.

저는 이번 2019년도 한림성심대학교 디지털콘텐츠과에 신입생으로 진학하여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은 늦었지만 동부교회에서 받은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조차 보지 못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받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큰 힘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 준다는 생각에 더욱 더 학업에 집중하며 대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09시 또는 10시까지 한림성심대학교에 가서 오후 7~8시가 되어서야 생활관에 도착합니다. 그 후 밥을 먹고 10시까지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 하고 생활관 밴드를 1시간 가량 연습한 후 잠에 듭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 편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디아코니아 장학금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며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사회의 대한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후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저처럼 힘든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한림성심대학교 전민탁


* * * * *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생으로 생활하고 있는 한샘고등학교 2학년 황원근입니다.

작년 1학년 때에도 선정되었고 이번 년도에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치고 힘들 때면 후원해주신 분들의 사랑과 격려가 큰 힘이 되어 꾸준히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취득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기초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금 2학년이 돼서는 성적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장학금으로 학교생활하면서 처음 장학금을 받을 때의 다짐이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관에서도 규칙을 잘 지키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원해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교회선생님과 후원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 한샘고등학교 황원근

* * * * *

디아코니아 장학금 감사 소감문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를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족과 가정예배를

드리며 매일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못 받으면 다른 친구가 받아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장학금을 받아 학원을 다니고, 필요한 책을 살수 있는 것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다. 봄에 장학금을 받아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원가는 날이 신나고 재미있다. 정말 다니고 싶었는데.. 디아코니아 장학회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디아코니아 장학금은 나에게 영어학원을 보내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도 선물을 주었다.

엄마는 나에게 늘 말씀하신다.

"열심히 공부해! 기쁨이가 도움을 받아 공부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 디아코니아 장학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봉사의 뜻으로 이행시 지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봉: 봉사를 실천하는 디아코니아는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사: 사회에 환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김기쁨이 되겠습니다. 

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김기쁨

* * * * *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뽑힌 양예린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 봉사한다는 것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장학금까지 주셔서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번학기에 처음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돼서 처음보는 장소, 처음 보는 사람들로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다 너무 좋은 분들이고 잘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전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국민들이 모두 조심해서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장학금으로 저의 전공을 살려서 교회에 봉사하고, 앞으로 저의 미래에, 저의 능력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디아코니아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글 강원대학교 양예린

*** **

하나님께서 저를 디아코니아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늘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앞으로 졸업까지 남은 시간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놓지 않고 찬양하며 기쁘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학업으로, 교회에서는 성가대에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들에 소홀히 하지 않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고, 늘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글 한국예술사관학교 이지선



디아코니아 장학금은
청년들의 꿈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숲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생동하는 계절 뿐 아니라 겨울로 가는 길목에도 숲은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숲에서 뿜어내는 강인한 생명력에서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양구 수목원을 추천한다. 양구 수목원은 우리나라 최북단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야생의 수목원이다. 2004년 생태식물원으로 문을 열고 올 6월29일 양구 수목원으로 명명됐다. 5만7,000여평의 수목원에 DMZ 야생동물생태관, DMZ 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잣나무 모롱잇길(무장애나눔길), 생태탐방로가 어우러져 있다. 대암산 해발 450m 산자락은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생태의 보고다.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피고 지는 야생화의 천국이다. 주말마다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



10월26일 수목원 내 목재문화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반제품의 목공예품을 조립하는 기초과정부터 전동톱과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활용한 고난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상구(35.목공예 지도사)씨는 "목공예 체험은 어린이들보다 보호자가 더 좋아한다. 어린이 체험관은 2층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유아들의 놀이시설도 함께 있어 가족단위의 체험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나무로 별걸 다 만들었다. 달팽이, 잠자리, 매미 등 곤충부터 모형비행기, 목재 장난감, 새집, 시계, 책꽂이, 쟁반 등 다양하다. 우드버닝기로 문양을 새기고 색을 칠해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누구나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 나무가 갖는 촉감을 통해 자연과 한층 가까워 질 수 있다.

1,600여점의 분재는 양구 수목원만의 자랑이다. 분재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해암정(실내 분재원)으로 들어왔다. 하루 2번, 물관리를 최우선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분재는 축약된 숲의 아

름다움을 간직하고 4계절 고른 기쁨을 선사한다. 갈참나무, 청느릅, 곰솔, 소사나무, 중국단풍 등 산자락을 호령하는 나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열렸던 분재 체험교실은 코로나 19로 열리지 않았다.

양구 수목원은 오염되지 않는 곳, 코로나19 따윈 잠시 잊을 수 있는 안심지역이다. 실내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훌쩍 떠나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바람의 길을 따라 계절은 더 깊어졌다. 잎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회오리바람이 몰아쳤다. 깊어가는 겨울, 낙엽마저 스산한 산속으로 길을 떠나보자.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땀뻑한 바람을 폐부 가득 담아오고 싶다. 

글 전경해 집사



라떼 파파 이야기

아이 셋을 키우는 육아 전쟁 속에서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한 초보 아빠의 소소한 단상을 적어봤습니다.

**카드는 조금 긁어도 돼.
복권도 가끔은.
하지만 피부는 절대 안 돼!!**

“금지말고 뿌리세요~ **** ♪”

출 퇴근길에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에서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광고에서 나오는 '로고송'입니다. 이 광고가 처음 나올 때부터, 제 마음 속 관심상품으로 꼭 담아놓습니다.

'오, 진짜? 이거 광고가 정말 사실이면.. 대박인데?' 바로 인터넷 검색에 들어갑니다.

'아 정말,, 사악하다. 진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물파스보다도 작은 용량에 4만원? 이거 완전 폭리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제품 사용기를 검색합니다. 웬만하면 '내돈내산 (업체에서 협찬받아 쓴 글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사서 써본 후기)' 후기들을 찾아봅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 비싼 만큼 효능이 있겠지. 설마 허위광고겠어?' 오늘도 희망 고문을 품고, 과감히 결제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로고송을 흥얼거리며. 중독성 있는 로고



송의 멜로디만큼, 효과도 중독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으며.

저희 삼 남매들은 모두 피부를 가려워합니다.

저희 부부는 피부 컨디션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임신 중 아이에 대한 별의별 걱정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지만, 특히 저희 부부의 걱정리스트의 최상위권에는 언제나 아이의 피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피부 상태는 가족력이 강하다는 여러 의학 정보들이 그 불안을 더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태어난 세 녀석 모두 역시나 피부를 꽤나 가려워합니다. 아직 세 명 다 어린 나이로, 아토피 피라고는 볼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가려워 괴로워하고, 손톱이 지나간 자리에 선홍색 핏방울이 보일 때에는, 그 모습이 참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나에 꽃히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쌍둥이 출산 후, 아이 엄마와 아이들의 피부가 특히

매우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제 모든 관심사는 우리 가족의 피부 호전이 되었고, 그러자 제 특유의 성향이 발동했습니다. 먼저 떨정한 신희 때 장만한 일반 가구들을 팔거나 버리고, 원목 가구들을 새로 들여왔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았습니

다. 아이 엄마는 이런 제 실행력에 조금 뜨악! 하기도 했지만, 제 성향을 알기에 말리진 않았습니

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기화합물이 아토피를 유발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서, 가스레인지도 인덕션으로 바꾸고, 유기화합물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뭐,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비싼 보습크림, 친환경 식품 구입 같은 것들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서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전원주택도 알아볼 각오까지 했답니다. 다행히 이런 여러 노력이 약간의 효험을 발휘한 것인지, 지금은 아주 심할 때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때는 어른 둘에 아이 셋, 일대일 맞춤형 굶어주기가 불가능한 조합이라, 아이들끼리 서로 굶어달라고 엄빠 쟁탈전을 매일 벌이고 있답니다.

**'아토피(atopy)'의 어원은
그리스어 'atopos'에서 유래한 말로,
'정체를 알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도 아직 확실한 완치법이 없는 난제임을 '아.토.피'라는 말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 제약회사들이 소망하는 최고로 발명하고 싶은 대박 약품이 2개 있다면, 그것은 '발모제'와 '아토피 치료제'가 아닐까요? 코로나 백신도 1년 만에 똑딱 만들어내는 현 인류의 기술력인데.. 아토피로 고통 받는 전 세계인들을 위해, 제약회사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계절 중 가장 건조하고 가려운 겨울이라 많이 힘드시죠? 모두들 '

굶지 않은 복권' 같은 우리 소중한 아기천사들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응원합니다! 우린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

글 김지원 집사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는 가려움증...



피부에는 과일이 최고지~♥



신임교역자 류형기 목사

1. 간단한 자기소개(가족포함)과 약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촌목회자로 섬기시던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가 아들이면 목회를 하도록 서원하셨고, 이름도 '땅을 밝게 비추라'고 지어 두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의 선행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 다. 친구들과 헤어지도록 이사를 하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내 인생인데 미리 결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과 교회의 기대에 많이 어긋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너는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경건의 모양은 네모입니까?" 라고 농담도 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신학(Th.B),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M.div)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궁금하면 찾아서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이해하기 위해 분석하고 탐구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상적인 평등을 꿈꿉니다.

안동에서 학생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기독교학생연합 활동을 하였고, 청년사역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학생연합에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오래 연애했습니다. 2013년 7월에

결혼식을 올렸고, 자녀는 첫째 시온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태오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쁜 선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으로 theodore에서 앞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셋째 이든이는 강하게 자라라고 지었습니다. 다섯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며 사역하고 싶습니다.

2. 목회자의 길을 걷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고민도 많고 분노도 많았던 사춘기 시절에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해서 부모님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 행동때문에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항심으로 부모님이 싫어하실 것만 골라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게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게 되었고, 결국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에 응답을 받았고, 몇달을 더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생각에 국어국문과 진학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된 동기는 '신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책 몇권 읽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했고, 목회자라는 명확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이면서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고시원 생활을 통해 일종의 신앙엘리트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꿈을 찾을 수 없고 사람에게 상처 입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가 없었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점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신대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3. 원하는 목회자 상과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은지?

크로닌의 소설 [천국의 열쇠]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어리석음과 잔학함에 용감히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관용은 최고의 덕목이고, 그 다음은 겸손이다. 우리의 뼈는 썩어서 들판의 흙으로 변하더라도 영은 살아서 영광과 광명의 천상에 살리로다. 하나님은 인류 공동의 아버지가 되신다."

소설의 주인공인 프랜치스의 말처럼, 무지함과 비인격적인 폭력들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충성된 종으로 흠잡을데 없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동역해가는 목회자로 기억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 존경하는 분이나 인생의 멘토가 되었던 분이 있으신가요?


묵묵히 교회를 지키며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예배를 지켜오셨고, 언제나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답답해보이기까지 했지만, 일관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학적 논쟁을 하기도 하며 멘토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5. 춘천동부교회를 택하신 이유와 성도와 교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를 쓰실 곳으로 가겠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사역을 계속해오다가, 청년사역을 내려놓고 교구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사역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춘천동부교회에서 청년사역자를 청빙한다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처음 이사와서 어리둥절 하지만, 성도님들의 밝은 모습과 예배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 앞으로의 목회 비전과 특별한 목회계획이 있으시다면?

한국교회의 갱신을 비전으로 삼고있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지 못해 질타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상을 섬길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사역을 하는 이유는 직면한 다음세대, 10년 뒤의 한국교회를 이어받을 세대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변화시켜나가고 싶습니다. 



신임교역자 김순중 목사

1. 간단한 자기소개(가족포함)과 약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어릴적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몇 달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매일 병원비를 걱정하는 저희 어머니께 같은 병실에 계시던 집사님께서 예수 믿으라시며 병원비를 내어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저희 가정은 교회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셨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음악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오랫동안 방황하였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여러 곳에서 저를 찾아주었고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제 목소리가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저를 어머니와 목사님께서 찾아주

시고 몇 달간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은 MBTI유형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따뜻하고 솔직한 유형의 ENFJ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유롭고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을 좋아하고 목표가 생기면 그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산 장신대학교 신학(Th.B), 부산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하고 현재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실천신학(Th.M)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24살에 첫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고 두 번째 사역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잠깐 들린 교회에서 대학생이었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2005년도에 모든 교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기에 아이에 대한 소망이 크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아내의 걱정이 커져 인공수정을 계획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수검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수겸, 알곡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가지기 이전부터 아들을 낳으면 주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각자가 좋아하던 이름이었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어 많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품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라기를 늘 소망합니다.

2. 목회자의 길을 걷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오랜 방황을 끝내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데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신학은 교회에서, 삶에서 배워 온 것과는 많은 것들이 달랐습

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와 서원에 의해 시작된 삶이라는 것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 후 담임목사님의 추천으로 교육전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4살 어린 나이에 30대 찬양팀을 이끌면서 군선교도 다니고 찬양집회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에게는 여전히 너무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삶에 고백하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28살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 원하는 목회자 상과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으로 바로 서며, 사람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품을 수도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50대에도 청바지를 입고 뛰어다니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40대의 목회자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50, 60대가 되었을 때 골목길을 걷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이라 인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4. 춘천동부교회를 택하신 이유와 성도와 교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동부교회는 제가 사역하는 9번째 교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번에는 경험하지 못한 곳, 그리고 학교에서의 배움과 교회에서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곳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의 청빙을 거절하고 제가 가야 할 곳을 기다렸습니다. 동부교회의 이름은 3년 전 인

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산 지역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 그저 스쳐지나가는 교회 이름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천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디아코니아를 교회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력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습니다. ^^::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멈출 수 밖에 없던 시기에 춘천동부교회의 드라이브 예배는 충격이었습니다. 정해진 예배 속에 참석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바라는 자들의 입장에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에 코로나19를 이유로 굳어져있던 예배자로서의 마음에 다시금 열정이 솟아 올랐습니다.

5. 앞으로의 목회 비전과 특별한 목회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교회의 사명은 한사람을 살리며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사람이 살아나면 가정에서부터 지역 사회에 까지 그 생명력에서 나오는 생동감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고 성령이 주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교회는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잊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영이 죽어가는 삶을 외면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며 다양한 형태로 삶에 나타나게 이끌어 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소통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 사회를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섬김(취약계층 after school, 다문화-언어, 문화지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

디아코니아 단신

디아코니아 학교 3단계 7기생 교육

작년 11월 첫 주 부터 시작된 디아코니아학교 3단계 7기 교육이 은혜 중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명의 교육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디아코노스로 거듭남이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디아코니아 장학생 선발

2021년도 섬김과 봉사로 영향력을 끼치는 다음세대 지도자를 위한 디아코니아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모집하여 2월 21일 주일에 총 23명의 장학생 인원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선발 된 학생들 모두가 강원도 땅을 대표하는 인재이자 노벨상을 받는 귀한 지도자들로 자라나길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강원도 재난관리 유공자 표창

우리교회가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재난관리 업무 추진, 특별히 사회봉사에 힘써온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위원장이신 성기혁 장로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시상식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28일 주일에 교회

에 전달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부 단신

2020 송구 영신예배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송구영신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금번 송구영신예배는 베어스호텔 아래에 위치한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영하 17도(체감온도 20도 이상)의 매서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Drive In(차량)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드라이브 인 예배-성찬식

올해 첫 성찬식이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1월 17일(주일) 춘천시 삼천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성도 모두가 약 200여대의 차량에 모여 Drive in 주일예배 및 성찬식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82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동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유아성찬이 거행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함 가운데 질서 정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4일간은 농어촌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으며, 22일~23일 양일간은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개인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으며, 마지막 토요일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표어 대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교회위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총여전도회 헌신예배

2021년 신년을 맞아 총여전도회 헌신예배가 1월 24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있는 가운데에도 많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강사로 오신 영월 즐거운 교회 채영운 목사는 "한 알의 밀이 됩시다" 제하의 말씀을 통해 '헌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직과 함께 하는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

2월 5일 금요일,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이 지난 후 제직수련회와 겸하여 '제직과 함께하는 금은밤'(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에 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한호 위임목사님의 제직 훈련관련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제직이 어떻게 헌신의 모습이 열매 맺고 있는지 알려주는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하나됨의 시간과 뜨거운 합심기도의 시간을 통해 한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수요일

2021년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 예식이 2월 17일 수요일 기도회와 더불어 거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한 경외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겸손을 예배로 올려 드리며,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십시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새벽성찬

2021년 처음 진행하는 토요새벽성찬 과 신년하례회가 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82년 역사에 처음 시작 된 토요새벽성찬은 유아성찬과 더불어 진행되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한 몸 의식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모실 리모델링 준공 감사예배

2월 21일 자모실 리모델링 준공 감사예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와의 전에 누웠던 아이 사무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가 아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예배에 주신 말씀처럼 주의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아이들과 부모가 가득한 예배 터전 되길 소망합니다.



교육부 단신

교회학교 졸업예배 & 교사 시상

1월 31일 전면 비대면 예배로 인해 12월말 진행될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한달 연기되어 1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0년 수료 및 졸업하는 아이들은 영아부 10명, 유치부 18명, 유년부 7명, 초등부 6명, 소년부 9명, 중등부 17명, 고등부 7명 등 총 74명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졸업과 수료를 하였습니다. 각 부서마다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한 분씩(이옥우, 김소영, 박명희, 최영미, 장민화, 서길순, 한병주 선생님) 시상하며 격려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새벽기도회 및 안수기도

자녀들을 위한 새벽기도회 및 안수기도가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인 토요일 새벽에 진행되었습니다. 방역을 염두하여 한 명씩 혹은 가족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성도들께서 오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중보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 글 이인호 집사

영월 동강할미꽃

영월과 정선으로 이어지는 동강 줄기의 암벽은 석회질이 풍부하여 할미꽃이 자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른 봄, 자줏빛으로 피어난 할미꽃은 겨우내 잠자고 있던 사진인들의 마음을 들뜨게하는 사진 소재이다.

동강할미꽃의 특징은 척박한 환경 때문에 일반 흙에서 자라는 할미꽃 보다 키가 작다. 때문에 꽃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피고, 서서히 고개를 숙인다. 또한 흙에서 자라는 할미꽃들은 많은 무리를 이루지만 동강할미꽃은 무리지어 피는 경우가 드물며 한 송이, 두 송이 정도 피는 것이 대부분이다.

암벽에서 자라는 할미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바위틈에서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피는 것이 기특하고 신기하기만 하다. 주의할 점은 사진 촬영시 시든 잎줄기들이다. 깨끗이 찍는다고 마른 잎들을 제거하면 시들어 고사하고 만다.

이 잎들은 수분이 없는 암벽에서 생명을 이어주는 수분 저장고와 같기 때문이다.